

전공의 지원자, '3D 科' 싫어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모집 현황 보니

안과·성형외과 등 몰려 편중 심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2009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비인기과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과정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비인기과의 경우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정원이 미달된 반면 '안정하고 돈 되는' 인기과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3일 전남대·조선대병원이 공개한 2009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1.23대 1(24개과 88명 모집에 108명 지원), 조선대병원은 1.34대 1(26개과 41명 모집에 55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두 병원 모두 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병리과 등 비인기과는 지원자가 미달되거나 겨우 정원을 채운 반면, 안과·신경외과·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인기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의료계의 '3D 업종'으로 불리는 흉부외과에는 두 병원 모두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각각 2명과 1명의 흉부외과 전공의를 뽑을 계획이었다.

주요 과인 외과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남대병원은 0.5대 1(모집 8명·지원 4명)의 지원율을 보여 4년째 정원 미달행진을 이어갔으며, 조선대병원도 4명의 정원을 겨우 채웠다.

응급환자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응급의학과는 두 병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정원 4명·지원 1명)과 조선대병원(정원 3명·지원자 없음) 모두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대표적인 3D 과인 산부인과는 전남대병원(정원 3명·지원 3명)과 조선대병원(정원 2명·지원 2명)이 겨우 정원을 채웠다.

또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정원에 미달했으며, 조선대병원도 병리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안과'는 전남대병원이 3.5대 1(정원 2명·지원 7명)의 경쟁률을, 조선대병원도 1.5대 1(정원 2명·지원 3명)의 경쟁률을 보여 전통적 인기과임을 증명했다.

내과도 전남대병원 1.56대 1(정원 16·지원 25명)과 조선대병원 2대 1(정원 7명·지원 14명)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이 보였다. 이밖에 전남대병원은 정신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조선대병원은 피부과, 정형외과에 지원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공 병·의원이 단 한군데도 없는 지역은 산부인과가 8곳, 흉부외과가 7곳, 응급의학과가 14곳이나 됐다.

한편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3D 진료과목'에 대해 내년부터 진료수가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전공의 1년차 지원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내과	15	25	15	37	16	31	16	25	16	25
외과	9	9	9	6	9	6	7	2	8	4
흉부외과	2	2	2	2	2	1	2	1	2	0
신경외과	3	3	3	5	3	8	3	4	3	7
성형외과	2	4	2	3	2	4	2	3	2	4
산부인과	3	3	3	1	3	3	4	2	3	3
안과	3	5	3	5	3	5	3	5	2	7
마취통증의학과	4	4	4	6	4	4	4	4	5	4
진단검사의학과	3	2	2	2	2	2	2	0	2	0
응급의학과	4	4	5	4	4	4	4	3	4	1

■ 조선대병원 전공의 1년차 지원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정원	지원
내과	7	13	7	10	8	13	8	13	7	14
피부과	1	3	1	4	1	4	1	5	1	5
흉부외과	1	2	1	0	1	1	1	0	1	0
정형외과	2	5	2	6	3	5	3	7	3	7
산부인과	2	3	2	0	2	1	2	0	2	2
안과	1	1	1	3	1	3	1	1	2	3
병리과	1	1	1	0	1	1	1	0	1	0
응급의학과	2	2	2	1	3	3	3	2	3	0



따뜻한 사회 만든 '영웅들'

광주시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08 광주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문화공연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는 이날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55명에게 '자원봉사 영예인 증서'를 수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08 광주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문화공연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는 이날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55명에게 '자원봉사 영예인 증서'를 수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들이 편의점 강도 잡았다

광주 서구 쌍촌동서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나던 강도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3일 오전 7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 30대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 김모(33·충남 천안시)씨는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만원을 빼앗았다. 순간 편의점 주인 오모(28)씨가 가게에 들어왔고, 이에 놀란 범인이 달아나면서 추격전은 시작됐다.

300여m를 달아나던 범인은 출근하던 장모(28·회사원)씨의 승용차에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하며 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범인이 조수석에 타려는 순간 흉기를 빼앗겼고 범인을 차량 밖으로 밀쳐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범인 김씨는 자신을 뒤쫓아온 편의점 주인 오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시민이

흉기를 든 강도범과 맞선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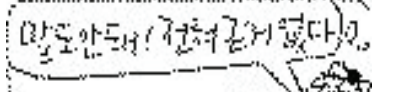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최철 대표 영장 기각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단체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이 청구한 최철 대표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침 (7669) 김종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호선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술 카페 모임서 술값 시비 폭행

○인터넷 '술모임' 카페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회비를 더 내라'고 말한 카페 운영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C(25)씨는 3일 새벽 4시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T소주방 앞길에서 '술모임' 카페 운영자 J(27)씨의 벽사를 잡고 가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C씨는 최근 인터넷 '술모임' 카페에 가입한 뒤 이른바 '술탕'(모르는 남녀들이 만나 회비를 걷어 단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나가 술자리를 가졌으나 J씨가 또 다시 회비를 거두려고 하자 화가나 폭력을 행사.

○C씨는 경찰에서 "회원 10명이 거둔 회비 60만원으로 3차 술값까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도 J씨가 또 다시 회비를 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승강기 음란 행위 어떤 죄?

검찰, 공연음란죄 기소... 범원 '피해자 한명, 적용 안돼'

'필때론 승강기 안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음란행위를 했다'면 어떤 죄를 적용해야 할까?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40대 여성을 앞에 두고 자위행위를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등 시각 차이가 보이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3일 준강도와 특수절도·공연음란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공소 사실 중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9월 7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40대 여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과 관련,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 승강기 안에는 피해자 단 한 명 뿐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폭행·협박이 없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단점이 많은 승강기에서 상대를 노려봤다고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승강기는 누구나 탈 수 있는 데다 CCTV가 설치돼 있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슈퍼마켓 여주인 앞에서 영영이를 보인 사건과 폐쇄된 차량 안에서 여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인정된 대전지법과 순천지원 판결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12월 4일 오픈 기념 특별 행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151번지

문의: 02-11-1111

대한민국 관리상 등만 초특가 세일!!!

1박2일 79,000원

2박3일 99,000원

주최: 제주(주)뉴 필드호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현리 35-1